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 시급

광주전남연구원, '상무역~남평읍~평동역' 순환 노선 제안 교통혼잡 비용 줄이고 출퇴근 시간 단축, 지역균형발전 유도

나주에 광주-전남이 공동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통근·통학인구가 증가하지만 도로 서비스 수준은 최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유도와 자가용에 의존하는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5일 '광주전남정책브리프'를 통해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의 필요성을 분석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광역철도망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정책브리프에 따르면 광주~나주 간 통근·통학인구비율은 2000년 1.98%에서 2015년 2.24%로 증가했다. 이는 다른 대도시권의 주요 지역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광주~나주의 교통 서비스 분석결과 고속국도 12호선과 국도 1호선의

서비스 수준이 각각 D와 E 등급으로 저정체가 심각한 상태다.

광주대도시권의 교통혼잡비용은 2017년도에 2.38조원이 발생했다. 광주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통근·통학자 수의 비율도 2005년 7.27%에서 2015년 9.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광주의 생활권 확대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에 따른 비용 증가와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중앙정부는 30분 이내에 주요 거점 도달이 가능한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등의 대도시권에서 운영·계획중이 있지만, 광주대도시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다. 조상환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현재

도로교통에만 의존하고 있는 광주~나주 간 광역교통체계에 광역철도망을 통해 교통 혼잡과 장거리·장시간 출퇴근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노선은 안전성과 편리성·신속성·정시성·균형적인 지역발전 유도와 지역 간 연계성 강화, 차량기지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초빙연구위원은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이상적 대안으로 '상무역-서광주역-농수산물유통단지-호천역-대촌사거리-남평읍-혁신도시-나주역-동신대-노안-평동역'을 순환하는 노선(35.3km)을 제안했다.

이 안에서 일부 구간인 '나주역-동신대-노안역-평동역'의 경우는 경전선 미개량 구간인 '광주송정-순천단선전철' 구간의 일부를 단거리적으로 활용하고, 중간거리적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인공지능 조성 업무협약 이용섭 광주시장(1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아크릴, ㈜이노딴, ㈜인비즈, ㈜코랩 등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청년창업 활성화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연매출 100억 돌파

출범 3년만에 자회사 12개 2026년 매출 1000억·고용 500명

전남지역 대학·연구기관의 우수기술을 사업화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주)전남지역대학연합창업기술지주회사가 3년 만에 자회사 12개를 거느리고 연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8년 말 출범한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는 2019년 자회사 5개사를 육성해 연간 총매출액 12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자회사 12개를 설립·편입해 육성, 2020년

한해 총매출액 128억원을 달성했다. 30여 명을 신규 직원을 채용해 자회사의 전체 직원 수가 76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배 이상 급성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사업 수주액도 26억원을 넘어섰다. 자회사 가운데 (주)포비드림은 소방 안전 구조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5년간 4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세계 최초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재난 구조 장비를 최근 개발했다. 지난해 '소방산업대상'을 수상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분야의 (주)소프

트웨어융합연구소, 기능성 화장품 분야의 (주)브이케이프론티어, 건강 기능식품 분야의 (주)기쁨농원, 산업폐기물 재생사업 분야의 (주)SQC 등도 과감한 투자로 기업가치를 키우고 있다.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는 오는 2026년까지 자회사 30개를 설립하고 연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해 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에 37억5000만 원을 출자·출연했다.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등 지역 대학에서 현금 7억8500만원과 현물을 투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도심 훼손지 매년 1곳 이상 복원

기후환경 위기 대응 생태공간 확충 제석산·우산공원 시작 2025년까지

광주시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해 매년 1곳 이상 도심 내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심 속 첫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록습지는 올해 수립되는 보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생태 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남구 제석산과 북구 우산 공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해마다 1곳 이상 훼손지를 발굴해 복원한다. 고유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도 지속해 실행 조사와 제거 작업을 병행한다. 광주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도로 대상지를 찾아 자연 친화적 생태관광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최초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평촌마을에는 생태 숲길, 탐방로 등 2.1km를 조성한다.

도심 숲속이나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 종을 찾아 기록하고 목록을 만드는 '생물다양성 탐사캠프'도 하반기 열기로 했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도심 내 생태 축복원과 확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생태 주민이 내 집 앞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축" 광주시 보행 안전 대책 추진

광주시에 지난해 11월 북구 운암동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후속 대책으로 보행자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중 교통사고 건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등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보행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5년간 298억원을 투입해 보행 교통환경 시스템과 신호체계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전체 구간 압적색 포장, 노랑 신호등 설치 등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확대한다. 광주시는 경

찰과 협의해 우선 출발 신호 체계도 도입한다.

보행자 신호를 차량 신호보다 3~7초 먼저 켜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11곳에는 X자형 대각선 횡단 보도를 설치해 한 번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 다발 교차로의 속도 개선, 새벽 시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의 황·적색 점멸 신호 확대, 노후 가로등 교체 등 사업도 시는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코로나 대응 간호직렬·보건연구사 수시인사 단행

광주시는 15일자로 간호직렬 및 보건연구사 등 신규 임용자 9명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앞서 감염병 대응인력 보강을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연구사, 보건·간호직렬을 선발하는 제3회 공채시험을 추가 시행하고, 39명(광주시 12, 자치구 27)을 최종 선발했다. 신규 임용 후보자는 지난 12일 직무교육을 수료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감염병관리과 등 코로나19 직전대응 부서로 임용 배치됐다.

광주시는 이번 인사로 코로나19 검체 검사 및 역학조사 지원 등 인력이 보강돼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전담부서 직원의 피로감 해소 등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공직은 '헌신, 봉사, 절제'하는 자리"라며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대중교통 분야 재난지원금 확보 총력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 이상 대중교통 분야의 재정적 피해가 큰 것을 고려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전세·시외·시내·농어촌 등 버스 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매출 감소와 경영난은 몹시 심각하다. 2019년 대비 2020년 전세버스 운수업체는 30%, 시외버스는 56%, 시내·농어촌버스는 26%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 전국적인 감소 규모는 전세버스 82%, 시외버스 58%, 시내·농어촌버스 26% 등이다.

고용 유지와 생계마저 어렵다는 운수업체 종사자의 어려움 호소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시외버

스 운수 종사자에게 40만원(도비)을,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50만원(시군비)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50만원(도비)을 지원하는 등 생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세버스 기사 등 11개 취약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후 계속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확대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오늘의 한걸음, 미래의 행복백신

행복으로(로) 걷기 광산

시민 & 동아리 모집

이렇게 신청하세요

개인 (주인)

1 워크온 앱 설치 및 실행

2 광산구 커뮤니티 그룹 행복으로 가입

동아리 (5인 이상 단체)

1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2 동아리 가입 신청서류 제출

문의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